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힘이 되는 불교문화축제의 장이 되기를..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굳은 서원과 소중한 마음이 담긴 “2015년 수화사랑음악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뜻 깊은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계시는 해성스님과 연화원 가족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화원은 장애인 포교에 중심에 있는 전법도량이자 장애인들의 오랜 안식처입니다. 장애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헌신하고, 장애인이 법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소식 또한 우리 사회에 훈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장애인복지에서 청명한 전법의 마음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연화원 가족 여러분에게 치하의 마음과 더불어 사회적 모범을 이루는 공덕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수화사랑음악회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법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문화의 마당이자 축제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장애인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기를 바라며, 자활, 자립, 사회적응 등의 용어들이 필요없는 모두가 하나되는 불국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극복해가면서 서로가 통합하고 고통과 갈등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눔의 마음으로 주변을 보살피고 함께 정진해 나간다면,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불국정토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수화사랑음악회를 축하하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9년 12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